

도, 지역계획 수립 연구 TF팀 운영

국토종합계획 반영·건의 위해
균형발전·주거·지역산업 등
국토발전 관련 분야 포함 구성

전북도는 15일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의 만료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1~2040)에 반영 및 건의를 위한 '지역계획 수립 연구 TF팀'을 구성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의 장기비전을 제시하는 국토에 관한 최상위 법정계획의 위상을 가지고, 최상위 공간계획으로서 하위계획 수립의 가이드라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국가차원의 국토발전 전략에 부합하면서 전라북도 차원의 특화된 발전전략 및 추진방안 등이 포함된 다각화된 '지역계획'을 수립해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고자, '지역계획 수립 연구 TF팀'을 구성 및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성원은 총 8개 부문, 총 36명이며, 단장(기획조정실장), 부단장(기획관), 연구기획(전북연구원), 계획지원(전북도), 자문단(도내교수 및 전문가)으로 업무체계를 구분했다.
주요분야는 균형발전, 기후 및 국토환경, 생활SOC, 광역교통, 도시관리 재생, 주거, 지역산업 및 4차산업혁명, 농업농촌, 방재안전, 공간정보, 국토자원 등 국토발전과 관련한 전 분야를

포함하여 구성했다.
'지역계획 수립 연구 TF팀'의 주요 활동 내용은 지역의 여건 및 이슈 분석을 통해 메가트렌드가 중장기적으로 지역에 미칠 영향과 현안과제를 도출, 지역이 지향하고자 하는 미래상(2040년)을 반영한 지역발전 비전과 목표 설정, 지역별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방향, 추진전략을 수립, 지역 현안과 주요이슈 해결을 위한 지역발전 계획과제 및 단계, 중장기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제시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전북도의 경우 관련분야별 도 및 시군 행정조직 중심의 지원 활동(자료공유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향후 일정으로는 지역사회의 전문가

로 구성된 지역포럼을 구성하여 '지역계획 수립 및 반영 건의'의 전 2회에 걸쳐 운영 개최하여, 전라북도 지역발전 아이디어 및 주요 이슈 도출을 유도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탄소융합기술원, 오늘 KC Tech day 열어

국내 유일의 탄소산업 전문연구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오는 16일 전라북도, 전주시와 함께 '제1회 KC Tech day'를 개최해 보유 특허기술을 공유하고, 연구소기업 설립 등 본격적인 기업지원 행보에 나선다.

15일 기술원에 따르면, 이날 전국의 탄소융합기술 관련 기업인들과 전문가 150여명을 초청, 기술원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기술과 논문을 공개하고 전북연구특구와 연계한 '연구소기업' 등 기술이전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공개 홍보되는 특허기술은 고출력 에너지 저장용 활성탄소 제조 방법 등을 비롯, 재활용 탄소섬유 회수 방법 등 10건을 포함 총 81건으로 기업으로의 기술이전이 가능한 기술들이다.
또한, 기술원의 특허기술에 대한 가치평가와 함께 이와 연계한 연구소기업 설립 등 기술이전 지원사업에 대해, 전북연구특구 관계자들이 상세히 소개한 뒤 전문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

도로공사 수목원 명칭 변경

내년 1월 1일자로 '도로공사 전주수목원'으로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에 소재한 한국도로공사 수목원이 내년 1월 1일자로 한국도로공사 전주수목원으로 이름이 바뀐다.
한국도로공사 수목원은 개설 당시부터 전주묘포장으로 시작해서 전주수목원으로 불려졌으나 2007년 한국도로공사에서 슬그머니 '전주 수목원'에 대한 명칭에서 '전주'를 뺀 새로운 표지판으로 교체되면서 한국도로공사 수목원으로 변경되었다.
전주수목원이 갖고 있는 '전주'라는 상징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였으며 이곳을 찾는 사람 대부분이 전주시민들

이라는 점을 무시한 황당한 결정이었다.
이에 대해 15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전주병 국회의원·사진)는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수목원 명칭에 대한 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이 사장은 이를 받아들여 내년 1월 1일부터는 한국도로공사 전주수목원으로 명칭이 변경되게 됐다.
또한 정 대표는 이날 한국도로공사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로공사 수목원이 1974년 전주묘포장으로 업무개시 이후 주변 주민들이 농사 및 이동통로가 확보되지 않아서 40년 이상 주민 불편이 많았다"며 농로 개설을 강하게 요구했으며 이에 대해 이강래 사장은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농로 개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북선수단, 종합 4위 순항중



대회 4일째인 15일 전북체육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전북

선수단은 종합 순위 4위를 기록 중이다.
금메달 36개, 은메달 37개, 동메달 54개로 종합득점 9949점을 획득했다.
이날 전북도청 소속 이혁중 선수는 체조 남자 일반부 단체전과 개인종합에서 각각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2관왕을 차지했다. /장은성 기자



한복문화주간... 팔을 드높이 2018 한복문화주간 행사 개막식이 15일 전주시 한옥마을을 경계한 특설무대에서 실시된 가운데 한복을 입은 시민과 관계자들이 플래시몹을 선보이고 있다.

2016년 지정 혁신학교 27곳 종합평가

도교육청, 민주적 학교문화·수업혁신·교육과정 다양화 등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016년 지정한 제6기 혁신학교를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혁신학교 재지정을 위한 이번 평가 대상은 초등학교 20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2개교 등 총 27개교다. 평가기간은 오는 23일까지다.
평가 항목은 민주적·개방적 학교문화, 수업혁신을 위한 노력, 교육과정의 다양화·특성화, 자율·자치·인권 존

중의 학교문화, 교수·학습 중심의 운영시스템 구축 등이다.
평가는 현장 방문 면담 평가와 혁신학교 효과성 분석 문항을 활용한 만족도 설문 평가로 이뤄진다.
학교별 종합평가 결과는 혁신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초에 발표된다. 또한 종합평가 결과는 학교별 성찰 및 발전계획 수립과 학교혁신 공유·확산을 위한 자료로도

활용된다.
교육과정 혁신은 전북교육청 민선 3기 혁신학교 정책의 핵심인 만큼 참학력을 기반으로 전북형 혁신교육을 완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혁신학교 종합평가는 재지정 여부 외에도 혁신학교 운영 우수사례를 발굴해 정책을 개선 보완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며 "교육과정 혁신을 중심으로 학교문화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5년새 정량미달 적발 주유소 전국 773건

조배숙 의원, "대다수 주유기 노후·관리 미흡 등 꼽아 관리 절실"



정량을 지키지 않고 기름을 판매한 주유소가 브랜드, 비상표, 알뜰 주유소 할 것 없이 전국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 익산을·사진)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8) 정량미달 적발 주유소는 전국적으로 773건에 달했으며, 브랜드별로는 SK주유소가 245건으로 가장 많았고, GS칼텍스 164건, 현대오일뱅크 151건, S-OIL 127건 순이다.
특히, 국민들에게 더욱 값싼 기름을 제공하고자 정부가 추진 중인 알뜰주

유소 역시 31건이나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31건으로 가장 많고, 충남 91건, 서울과 경북이 88건, 전북 53건 등으로 뒤를 잇는다.
한편, 정량미달 총 773건 중 실제로 주유기 엔코더 조작, 메인보드 불법 부착물 등의 불법 적발건수는 총 65건이며,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그 외 대다수의 정량미달 적발건수는 주유기 노후, 관리 미흡 등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한다.
조배숙 의원은 "최근 치솟는 기름값에 시민들 부담이 극심한 상황에 앞선 데 달린 격으로 정량미달 주유소까지 전국적으로 상당한 수가 적발되고 있다"며, "특히, 의도적인 불법 조작 이외에 주유기 노후, 관리 미흡 등으로 발생하는 대다수의 정량미달 건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원광대 동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18일부터 이틀간 국제학술대회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소장 유권홍)와 익산학연구소(소장 임승배)에서는 제1차 국제학술대회를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교내 송산기념관에서 개최한다.
동북아시아이디먼션(NEAD) 토대 구축을 위한 이번 학술대회는 '동북아시아의 한국학 연구 동향과 쟁점 그리고 전망-중국·러시아·일본·몽골의 연구기관과 연구자 네트워크'를 주제로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몽골 연구자 17명이 발표자로 나선다.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는 2017년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인문한국(HK+)사업에 '동북아 공동번영을 위한 동북아시아이디먼션(NEAD) 토대 구축: 역사, 문화 그리고 도시'를 주제로 선정돼 학문적 초석을 놓고 있으며, 제1차년도 성과 정리와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기 위해 국제학술대회를 마련했다. /익산=우병희 기자